



일곱 식구가 살고 있던 단칸방에는 이불이 하나뿐이었다. 그런 처절 한 가난 속에서도 우리 가족의 새벽 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고 그 기도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다. 어머니의 기도는 당연히 서울에 있는 형님의 기도는 상대적으로 길었고 막내에 해당하는 나와 여동생은 건강하고 공부 잘하라는 식의, 별로 열성도 없게 느껴지고 흐지부지한 짧디 짧은 기도였다. 남자 중 막내였던 나는 당연히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부모님의 행상을 도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 집엘 찾아 오셔서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하시는 게 아닌가 “명박이 어머니, 지금은 모르지만 남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가져야 목에 풀칠이라도 합니다.”

어머니의 조건은 삼엄했다. ‘입학 할 때 수석으로 입학할 것. 입학 후 학교에서 계속 1등을 할 것. 그렇게 해서 등록금이 면제 되는데 까지 만이다’ 라고 뜻을 박으셨다. 나의 고등학교 진학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행상을 도우라, 장사를 시작하라, 경황없이 학교를 다니는데 어머니의 새벽 기도는 철저했다. 한칸 방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나 혼자 새벽기도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 가족 중에 가장 피곤한 사람이 어머니였다. 행상에다가 식구들의 빨래며 매끼 밥치다꺼리는 끝이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온 식구를 깨워 둘러앉게 하셨다.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덕이며, 우리가 행상이나마 해가며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덕이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아니냐? 짐승도 감사를 알거늘 사람이 감사를 모른다면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어느 때는 졸면서 예배를 드렸고 어느 때는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기도했다. ‘어머니 제발 단 한번 만이라도 잠을 실컷 잘 수 있게 해 주세요. 당신도 피곤하고 우리들도 정말 견딜 수가 없거든요. 한번만 잠 좀 실컷 자게 해 주세요’

그러나 가냘픈 어머니의 어깨를 보면서 차마 그 말을 입에 담지는 못했다.

막내에게는 기도를 대강 해 주신 것 같은 어머니.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일과, 그 뒤에 이어진 내 인생 행로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햇불이었고, 그 기도의 햇불 속에는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이 계셨다. 막내아들에게는 그저 영성하게 느껴지도록 대강 기도를 하신 것 같은 어머니의 가슴 속에 나의 미래가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눈물과 함께 바라보고 있다.



◀그때 그랬지 ▶ 크리스마스 썰

폐병이라고도 했던 결핵퇴치를 위해 12월이 되면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썰 몇장씩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때 우표 옆에 나란히 붙혀 보내면 결핵치료에 기금이 사용되어 결핵퇴치에 작으나마 참여케 한 “썰”, 이젠 그 ‘썰’ 조차 아직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잃어버린 그 시절의 따듯했던 마음입니다.

☎ 1953년 결핵협회 최초의 썰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보리교회 (마7:8)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8권 5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12월 24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80노인들의 새벽송

정덕남



하나 둘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은 떠난 시골,
주름지고 힘없고 제대로 식사마저 변변치 못한 어른들,
마음도 주름져 아이들과 같이 되어버렸고 눈가엔
항시 눈물이 묻어 있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버려진 상태의 시골집처럼 초라하게 지내는 시골
교회지만 죽기 전까지는 새벽송을 해야 한다며 울
해도 어김없이 다녔습니다.

제발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는 말에도 새벽송 다니다 죽는 한이 있다 해도
이것 밖에 시골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동방박사들의 심정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님의 성탄을 알렸습니다.

몸은 약해져있고 여러 가지로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마음은 천국을 그리워하
는 청춘이 되어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좋아하실 지, 내년에도 한분도 빠짐없이 새벽송 다닐 수 있을
지, 하루하루 살아 계심이 기적이요 감사요 축복입니다.

온몸을 움츠리게 하는 날씨와 버려지다시피 한 노인들과 시골교회의 형편이
같이 보여 입술을 깨물고 까칠한 손들을 한 분 한 분 잡아봅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우리는 사람을
최악의 상태에서 평가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의 상태에서 평가하려 한다

◀인품따라 행하기▶

알콜에 담그면
물체를 보존할 수 있다.
알콜로 보존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존엄뿐이다

주일 예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y	Calvary	다 같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율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31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56(강림절 2)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122장	다 같이
기도 Pray		이광희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1:23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109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새벽잠을 설친 노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중요한 곳에 쓰일 작은 서까래로 예물을 드립니다"

-제1 여선교회 바자회로 성전건축헌금 드린 헌금봉투에서-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190 + 한화(₩)30,000 + AU /US \$428	총액:\$282,254
---	--------------

◆12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차량	안내
3	최득수	장현중	본당:임해자. 정희자
10	현석호	정덕수	현관:장현중 정덕수
17	박일영	최재학	
24	이광희	고성일	새교우:이광희.이근평
31	장현중	권용일	장유진

◆12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3	세례식 대강절시작 월초새벽기도회(1) 구역예배종강(8)
10	민음의 어머니기도회(12)
24	성탄주일 성탄예배(25):유아세례 성탄축하의 밤(24)
31	송년주일 송구영신예배(31)

『교회 생활』 2006년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 12:30분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토 오후 5시

- 교우소식
*<이사> 김광영, 장태옥 집사. ☎309-2788. 23 Emily Pl. 3N Silo Apt. City
- 예배 후 성탄축하의 잔치"Christmas with family"
*예배 후 Tea Time과 호주변 산책을 즐기신 후 준비된 성찬축하잔치를 갖습니다.
- 성탄절 예배. <일시> 25일(월) 12:30분. 교회당에서 드립니다
- 3유아세례식 <25일 성탄절>:나은서.이채원.Tiffany.
*부모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어린 아기, 믿음 안에서 자라는 지혜와 건강이 더욱 빛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송구영신예배
<일시> 31일(주일) 밤 11:30분 <장소> St David's Church
*2006년을 보내며 새해를 맞는 그 시간에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족과 일터의 2007년의 복됨을 위해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 수요예배 방학
*밤하늘의 쏟아지는 별을 헤다가 기도로 잠이 드는 가족들과 야외에서의 하룻밤, 자녀들과 수요예배 방학때 가져보십시오. 별 같은 아름다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착한 시인들▶ 성탄시 98

홍예상
여물로 태어났다
진실로 겸손히
모두의 그릇에 담겼다
인제
마음아
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말처럼
겸손히

